

패널조사 현황과 과제

State and Challenge of Panel Survey in Korea



손창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재 국내 패널조사는 대우패널을 시점으로 약 1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패널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 패널의 특징을 요약정리하였고, 통계품질지표 6가지 요소로 평가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여 향후 패널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의 확보를 제언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기

국내에서 사회조사에서 패널조사(panel survey)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시작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tudy)”이다. KHPS는 1993~1997년 까지 5차 년도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중단되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한국노동패널을 운영하면서 패널조사가 재도입되었다. 한국노동패널의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패널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패널조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9년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단 등에서 운영 중인 패널조사는 17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

회적 정책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패널조사를 수행하거나, 향후 패널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패널조사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패널 조사를 기점으로 지난 10년 동안 패널조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리예산, 연구인력, 조사 설계 및 관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및 예산관련 당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 및 보건 관련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초자료를 보급하고 개선하여 양질의 통계자료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KHPS를 시점으로 출발한 국내 패널조사의 현황을 파악하

고, 각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최근 통계품질관리의 측면에서 품질 지표인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접근성(accessi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를 비교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패널 조사 현황

패널조사는 크게 조사단위(survey unit)에 따라 가구패널(household panel)과 사업체패널(establishment panel)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노동패널의 경우 가구패널로 볼 수 있고,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체 패널의 경우 사업체 대상 패널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가구패널의 경우 가구의 개념이 희석됨으로서 실제적으로는 개인패널(personal panel)로 구분하기도 한다. 분야별로 패널을 구분하면 복지, 노동, 연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각 패널별로 조사목적이나 조사단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사주기에 따라 패널을 종단패널과 코호트패널로 분류하기도 한다. 2007년 통계개발원에서 국내 패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예정인 패널을 제외하고, 약 16종의 패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예비조사의 경우 제외).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노동, 청소년, 복지, 여성, 장애인, 사업체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로부터 조사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분류한 이유는 표본추출 단위는 가구이지만, 실제로 패널의 분석단위는 개인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사단위를 개인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대상 패널은 사업체 패널과 인적자본기업패널 2종으로 파악되었다. 노동패널을 제외하고, 대부분 2004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한국청소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코호트패널을 구성하여 동일 연령대의 동적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패널조사 조사주기는 1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노후보장패널, 사업체패널, 인

표 1. 국내 패널 조사 현황

연번	분야	패널명	운영주체	조사 단위	조사 주기	패널 구축시점
1	노동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Korea Labor income Panel Study)	한국노동연구원	개인	1년	1998년
2	노동	고령화 인구패널조사 (KLoSA: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한국노동연구원	개인	1년	2006년
3	노동	사업체패널조사 (WPS: Workplace Panel Survey)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2년	2002년

〈표 1〉 계속

연번	분야	패널명	운영주체	조사 단위	조사 주기	패널 구축시점
4	노동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HCCP: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체	2년	2005년
5	노동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촉진공단	개인	1년	2008년
6	노동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	한국고용정보원	개인	1년	2001년
7	노동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한국고용정보원	개인	1년	2006년
8	복지	한국복지패널조사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	1년	2006년
9	복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국민연금연구원	개인	2년	2005년
10	복지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 Family)	한국여성정책개발원	개인	1년	2007년
11	복지	한국아동패널조사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육아정책개발센터	개인	1년	2008년
12	교육	한국교육종단연구 (KELS 2005: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한국교육개발원	개인	1년	2005년
13	교육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KEEP: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인	1년	2005년
14	교육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	1년	2003년
15	보건	한국의료패널조사 (KoHPS: Korea Healthcare Panel Stud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	1년	2007년
16	경제	재정패널조사(Finance Panel)	한국조세연구원	개인	1년	2008년

자료: “국내패널조사의 현황과 분석, 2007, 통계개발원”을 재편집하였음.

적자본기업체 패널은 2년의 조사주기로 파악되었다. 주로 격년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패널의 경우 홀수년도는 조사를 수행하고, 짝수년도에는 패널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에서는 각 패널별로 조사대상과 조사목적은 요약한 것이다.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이 패널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특히 교육 관련 패널의 경우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행정 담당자들을 조사하여 다른 패널 조사와는 다르며, 종단자료의 구성 또한 코호트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패널조사에서 패널가구나 패널 사업체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조사단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1차년도 패널 구축 절차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표본선정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

표 2. 국내 패널 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목적의 비교

패널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한국청소년패널	○ 표집틀: 2003교육통계연보 - 중2: 3,000명(학생, 학부모) - 초4: 2,500명(학생, 학부모)	-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구축
한국교육 종단연구	○ 표집틀: 2005교육통계연보 - 중학교(150개교)1학년 6,908명 *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통계 등 조사 * 대체표본추가표집 ○ 중1학생을 17년간 추적조사	- 학생개개인이 여러 수준의 교육단계를 거쳐 직업세계로 진입해가는 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주요교육문제와 진로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 - 중등교육관련 종단적 자료의 수집,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수집, 인적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 학교교육의 효과성, 사회이동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영향력에 초점
한국교육 고용패널	○ 표집틀: 2003년 교육통계연보 - 중3: 2,000명 - 일반고3, 전문계고3: 각2,000명 *보호자, 담임교사, 학교행정가 동시조사	-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과정과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기초자료제공 - 학교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요인조사, 학교교육요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과 이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청년패널	○ 표집틀: 1995 인구주택총조사의 10% • 만15~29세의 청년층 5,900명 (2001년 기준)	-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career path) 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획득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 표집틀: 전문대, 대학졸업생 DB • 전문대/대학졸업생 25,000명 (2004.9/2005.2 졸업)	-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조사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 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정보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고령화연구패널	○ 표집틀: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61,237개 • 45세 이상 개인 약10,000명(제주도 제외 전국 6,171가구)	- 중고령 인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활용될 기초자료 생산
장애인고용패널	법정 장애유형을 지니고 있는 전국의 만15세 이상 재가 장애인	- 장애인의 경제활동관련 전반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취업과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성
한국아동패널	• 2008년 신생아(1,800명) • 신생아어차양육자(주로어머니) • 신생아어머니 • 신생아아버지	- 출생에서부터 취학전까지 아동의 성장, 발달 및 생활에 관한 종단적 자료수집 - 부모, 가정 및 육아지원을 포함하는 아동의 주요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단기적인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파악

<표 2> 계속

패널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한국노동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도시거주 5,000가구와 해당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만으로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여성가족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500가구 만19~64세 여성 (약1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가치/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정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횡단면 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 추적
한국복지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집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 전국 표본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 - 가구(7,072명) - 가구원(14,463명) - 아동부가(7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역동적 분석의 유의성을 동시에 확보 - 체계적인 조사표 작성을 통해, “복지패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관련 지표생산과 관련 연구·분석 등에 널리 활용
한국의료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집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 전국 약 8,00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시행
국민노후보장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집틀: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4,995개 • 만50세 이상 가구원 거주 5,133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 파악, 연금 및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생성
사업체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인 일반사업장과 공공기관 - 4,275개사업장(일반사업장:3,916개, 공공기관:35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의 동태적변화와 고용구조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모델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
인적자본기업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수 100인 이상이면서 일반기업이상 - 기업: 450개 - 사업장: 205개 - 근로자: 14,631명 (팀장 4,338명 및 팀원 10,29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기업이 지닌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기업들이 인적자원 개발에 기울이는 노력, 그리고 이같은 기업의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개발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구축함

〈표 2〉 계속

패널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재정패널조사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 - 약 5,000여개의 가구와 약 7,000여명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	- 재정패널조사를 통하여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정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음

자료: “국내패널조사의 현황과 분석, 2007, 통계개발원”을 재편집하였음.

약되었다. 패널목적과 대상에 따라 표집틀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선별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 가구나 개인을 조사단위로 고려할 경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표집틀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집틀을 사용가능하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1차 패널구축시 확률표본을 이용하여 표본의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널의 대표성 확보 측면이나, 추정의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구축된 패널조사에 대해 패널의 성공여부에 따라 각 패널을 평가하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품질 지표를 제시하여 현재 수행중인 패널조사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보다 신뢰성 있는 패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통계 품질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품질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각 패널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패널의 품질 지표¹⁾

일반적으로 통계의 품질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비교 가능성”, “일관성”의 6가지 지표로 요약 가능하다. 이들 지표들은 이미 OECD와 EUROSTAT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이며, 국내에서도 각 통계별 품질진단시 품질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화된 품질지표를 활용하여 각 패널별로 적용 가능한 기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패널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가지 품질 지표의 정의와 지표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데이터가 공헌하는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데이터나 정보가 생산된 목적이나 이용자가 추구하는 목

1) EUROSTAT(2003), Assessment of Quality in Statistics: Methodological Document Standard Report, Working Group, Luxembourg, 2003.

OECD, Quality Frame and Guidelines for OECD Statistical Activities, 2003.

통계청 “자체품질진단 매뉴얼”, 2007

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더 나아가서, 가치는 데이터나 정보 생산의 기회비용, 법적 요구사항, 기관의 수입업무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목적들이 공헌하는 정도에 의해서도 평가된다.

통계가 현재 상태와 잠재적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사용된 개념(정의, 분류 등)의 범위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이용자 만족도지수”, “이용가능 통계비율” 등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2)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은 통계활동이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정확성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도 측정은 대개 오차 또는 오차 유의도 측면에서 측정되고 기술되며, 오차의 주요 원천들, 예컨대 표본추출, 무응답, 자료처리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참값에 대한 정확한 계산값 또는 추정치의 엄밀성으로 해석하며,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포함오차, 측정오차, 처리오차, 무응답오차, 모형가정오차) 등으로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며, 대표적인 지표로서는 변동계수(CV), 과대 또는 과소포함률, 대체유무, 무응답 오차 등을 들 수 있다.

3) 시의성과 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시의성/정시성은 특정사건이나 현상의 발생 시점과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간의 시차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아직 사건이나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시의성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상호 결합되는 관계에 있다.

시의성은 정보의 이용성과 그 정보가 나타내는 사건 또는 현상간의 시간간격을 말하며, 정시성은 자료의 실제공표일자와 목표공표일자간의 차이를 말한다.

시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조사기간 최종 시점과 공표 시점 간의 시차로 측정이 가능하며, 정시성은 발간물 공표시점과 발간계획 시점간의 시차로 측정된다.

4) 접근성(Accessibility)

접근성은 통계기관이 소유한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반영한다. 또한 이용자원에서 본 정보포맷의 적합성, 공개매체, 메타데이터(meta-data)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이용자가 이용가능성과 입수경로를 알 기회를 가지는지 등이 고려된다. 또한 특정 정보가 그 정보에 가치를 느끼는 이용자에게 제대로 제공되는가도 이러한 특성의 한 측면이 된다.

접근성이란 통계이용자가 관련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으로서 통계의 배포경로, 가격, 저작권, 이용매체 등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며, 명확성은 통계정보의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관련 메타자료와 보조자료의 제공여부 등을 평가한다.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발간물의 수와 DB 접근회수 등이며, 명확성은 관련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정보의 완비율로 측정된다.

5)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비교성은 하나의 통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데이터와 정보 간에, 그리고 각기 다른 통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 세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완결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지리적 또는 시점들 간의 통계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통계적 개념과 정의의 상이점을 측정하며, 유사통계에 대한 비교성을 측정하며, 시계열에 대한 비교가능성은 시계열의 길이와 수로 측정된다.

6) 일관성(Coherence)

완전한 일관성을 가진 데이터란, 내부적으로, 시계열상으로, 그리고 결과치와 프로그램 간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되는 개념과 모집단은 다른 유사 통계프로그램들의 개념과 모집단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와 논리적으로 구별 가능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용통계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신뢰성 있게 결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일관성의 측정 보다는 비일관성을 측정한다. 측정 지표로서는 잠정치와 확정치간의 일관성을 측

정하기 위해 절대오차백분율이나, 비편향 절대 오차백분율 등이다. 한편 분기별 통계의 경우 연간 통계와 분기별 통계간의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각 패널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지표를 산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패널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으로부터 전체적으로 품질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이용자들에게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유무가 주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로 부터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거의 모든 패널이 학술대회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을 계층화 하여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어떠한 개선사항들이 도출되었는지를 각 연도별로 문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우선 모든 패널에서 “표본유지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각 연도별로 중요변수에 대한 응답률을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더불어 주요변수들의 추정치와 그에 따른 표준오차(또는 상대오차)를 병기하여 보고서에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패널 보고서를 살펴보면 “표준오차” 대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점은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표 3. 패널의 품질지표

패널명	품질지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및 정시성	접근성 및 명확성	비교 가능성	일관성
한국청소년패널	자문회의/학술대회/ 이용자의견 반영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학술대회참가자 CD 제공	교육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한국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 전문가협의/세미나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학술대회참가자 자료제공	교육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전문가협의/세미나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홈페이지	교육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청년패널	만족도조사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학술대회 참가자 자료제공	통계청 경찰조사/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잠정치 제공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전문가의견수렴/ 만족도조사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홈페이지	교육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고령화연구패널	전화/이메일	표본유지율 무응답대체 표준오차	데이터제공시점	홈페이지	-	시계열유지 잠정치 제공
장애인고용패널	수요조사/학술대회/ 간담회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	장애인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한국아동패널	-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데이터제공시점	-	-	시계열유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데이터제공시점	홈페이지	통계청경찰조사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잠정치제공
여성가족패널	전문가의견수렴/ 자문기획단회의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	-	시계열유지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전문가회의	표본유지율 무응답대체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홈페이지 /KOSIS	통계청가계조사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잠정치제공
한국의료패널	-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	-	시계열유지
국민노후보장패널	전문가자문회의/ 학술대회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보고서발간 및 데이터제공시점	학술대회 참가자 자료제공	국민연금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사업체패널	홈페이지/학술대회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데이터제공시점	홈페이지 (유/무상)	사업체통계 /연도별 자료	시계열유지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전문가회의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데이터제공시점	CD 유료판매	-	시계열유지
재정패널조사	학술대회/ 전문가회의	표본유지율 표준오차	데이터제공시점	학술대회참가자 자료제공	-	시계열유지

시의성 및 정시성 지표로서는 대부분 1년 단위 사업으로 당해 연도 연말에 잠정치들 기준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학술 대회 때까지 보완하여 학술대회와 동시에 확정치와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정시성 및 시의성은 조사완료 시점부터 학술대회 개최 까지를 시간격으로 상정하거나, 잠정치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부터 학술대회 까지를 시간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잠정치와 확정치 간에는 약 3~6개월의 시간격이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접근성 및 명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원자료 및 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가지표로서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구축된 패널 조사의 경우 학술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패널의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가공 자료를 KOSIS에 등록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패널의 비교가능성 지표에 대해서는 개별 패널의 조사목적과 대상에 따라 관련 통계들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패널의 경우 교육과 학기기술부에서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와 비교가 가능하며, 청년패널의 경우 통계청의 경찰 조사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 가능한 통계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관련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지표로서는 패널조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1년 주기로 생산되는 패널자료들은 동일한 단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특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보고서를 발간할 때 중요변수에 대한 전년도 분석내용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현재 자료의 일관성을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개별 품질지표에 대해 패널별로 제공 가능한 다양한 메타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패널조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별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원자료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향후과제

혹자는 패널의 난립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응답자들의 응답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 분야별로 대표되는 패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통합내지는 중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횡단기초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종단적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횡단자료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정책연구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종단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연구의 기초자료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패널조사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자료로 활

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패널 조사의 품질측면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연차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개선성과를 진단하도록 함으로서 패널조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패널자료의 이용자목록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는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에게 대해 반드시 DB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패널자료의 활용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패널자료의 활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사관리 측면에서 몇몇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사관리가 실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연구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패널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통계청의 협조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 유수의 패널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워킹페이퍼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연구진과 연

구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의 패널 연구진의 규모를 파악해보면 1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생산에 전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관련 연구진의 심도 있는 연구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기 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연구진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개별 패널별로 수행되고 있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확대하여 관련 주제별로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연구의 풍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관별 협력가능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몇몇 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국내 패널자료와 외국의 패널자료의 상호 교류를 통해 패널자료의 활용성 및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개별 기관의 패널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국내 패널자료를 활용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연구의 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